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 가톨릭 직장인



VOLUME 294 | DECEMBER 2021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1년 12월호 / 통권 294호

발행일 2021년 12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1©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ontents

VOLUME 294 | DECEMBER 2021

Editor's Note	4
생태달력	6 2021년 대림시기 생태달력
함께 읽는 성경	8 희망한다는 것?
전례와 생활	12 미사 바로 알기 (2) - 미사의 시작
	16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교회의 가르침	20 사회 교리와 「찬미받으소서」
신앙과 삶	24 재혼의 조건
듣다 읽다 보다	28 고전 음악을 듣다
	34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40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44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48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News & Views	54 직장사목팀 행사 및 소식



### THE COVER

서울 어느 성당의 2017년 성탄구유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일상의 회복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코로나 단계적 완화 조치가 시행되어,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미사를 함께 모여서 거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뭔가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 마냥 즐거워할 수만도 없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는 줄어들 생각이 없는 것 같기 때문이죠.

교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좌석 수의 50% 정도의 회중이 모여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칸 띄어 앉아 미사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공동식사는 할 수 없지만, 소모임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도무지 모일 수 없었던 시절에 비하면 아주 많은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린 셈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해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기회의 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교우분들에게 '참으로 고맙습니다. 잘 견뎌주셔서'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아니 전례력으로는 이미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성탄과 재림을 깨어 기다리는 시기인 4주간의 대림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은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하느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요,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에 걸맞은 삶은 사랑을 기억하여 깨어있는 것, 사랑에 민감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삶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하느님과의 끝없는 만남을 통한 기도로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의 결과는 준비된 이에게 오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대림을 시작한 것이요, 성탄의 설렘을 준비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리 성탄 축하 인사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가톨릭직장인」 애독자 여러분 모두 기쁨 가득한 성탄과 새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카 2,14)

신우식 신계라미교회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본부장

# 2021년 대림 시기 생태달력

11월 28일~ 12월 25일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바탕으로 한 이 대림시기 달력은 우리가 우리 공동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도록 초대합니다. 회칙의 관련된 항을 매일 읽고 성찰, 묵상, 행동으로 이어지는 은총의 대림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CBCK,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memo
<p>28 찬미받으소서 71항</p> <p>대림시기 주제인 '기다림'은 자연을 통해 다가움을 묵상하기</p> 	<p>29 찬미받으소서 1항</p> <p>어머니의 따스한 품을 기억하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품과 비교하기</p> 	<p>30 찬미받으소서 20항</p> <p>자연 속에서 오래 걷기를 즐기고, 일상의 활동들을 위해 더 자주 걷는 계획을 세우기</p> 	<p>1 찬미받으소서 116항</p> <p>“세상에 대한 지배는 책임 있는 관리”임을 성찰하기</p> 	<p>2 찬미받으소서 151항</p> <p>친구들과 인근의 공동 구역들을 보고하고 강화하는 법에 대해 논의하기</p> 	<p>3 찬미받으소서 34항</p> <p>노인들과 지역의 약초와 약용식물들에 대해 질문하고 대화하기</p> 	<p>4 찬미받으소서 42항</p> <p>내가 사는 지역의 다양한 식물들과 동물들의 목록을 만들기</p> 	
<p>5 찬미받으소서 58항</p> <p>지구를 위해 일하는 지역의 비영리단체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활동에 감사하기</p> 	<p>6 찬미받으소서 19항</p> <p>인간 사회와 환경, 가난한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그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과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p>	<p>7 찬미받으소서 68항</p> <p>자연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자연의 신비에서 무언가를 배우기</p> 	<p>8 찬미받으소서 227항</p> <p>우리의 전통 음식을 즐기고, 재배되는 토종 작물들에 대한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정보를 공유하기</p> 	<p>9 찬미받으소서 143항</p> <p>문화적 관습에서 자연을 이용한 흔적을 찾아보기 그리고 노인들과 그 의미에 대해 대화하기</p> 	<p>10 찬미받으소서 8항</p> <p>나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훼손을 조사하고, 어떤 행동이 요구되는지 검토하기</p> 	<p>11 찬미받으소서 14항</p> <p>우리 공동의 집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종교간 대화를 통해 성찰하기</p> 	
<p>12 찬미받으소서 87항</p> <p>형제인 태양과 누이인 달과 모든 피조물을 주신 창조주를 찬미하기</p> 	<p>13 찬미받으소서 85항</p> <p>각양각색의 나뭇잎들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기</p> 	<p>14 찬미받으소서 179항</p> <p>지역의 환경 캠페인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기</p> 	<p>15 찬미받으소서 102항</p> <p>기술이 지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찰하고,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나누어 주기</p> 	<p>16 찬미받으소서 58항</p> <p>지역의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하여 플라스틱과 쓰레기들을 줄이고 재활용하기</p> 	<p>17 찬미받으소서 149항</p> <p>관대한 마음으로 내가 고용한 직원들이 성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기</p> 	<p>18 찬미받으소서 177항</p> <p>우리 나라가 지구를 보호하는 정책과 실천 과제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p> 	
<p>19 찬미받으소서 98항</p> <p>아기예수님이 오실 구유 꾸미기. 구유와 자연의 밀접한 관계를 묵상하기</p> 	<p>20 찬미받으소서 103항</p> <p>인간 삶의 질을 향상 시켜준 발명들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기</p> 	<p>21 찬미받으소서 211항</p> <p>가정에서 자연 친화적인 습관들은 무엇인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는지 가족들과 대화하기</p> 	<p>22 찬미받으소서 222항</p> <p>다가오는 새해를 위해 '생태 계획'을 세우기</p> 	<p>23 찬미받으소서 97항</p> <p>자신들만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새들의 합창을 즐기기</p> 	<p>24 찬미받으소서 238항</p> <p>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에 오신 것을 기뻐하기</p> 	<p>25 찬미받으소서 217항</p> <p>'생태적 회개'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 세우기</p> 	

## 희망한다는 것?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학교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매주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본문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필사해봅시다.

### 1. 그리스도인의 희망

1코린 15장을 읽어보세요

희망(希望)은 자신이 바라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 혹은 예측을 의미합니다. 희망은 인류사에서 많은 문학과 예술, 영화와 연극의 주요 주제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희망은 우리의 삶에서 떨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어찌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교회는 믿음, 희망, 사랑을 향주 삼덕(向主三德)이라 하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세가지 덕목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희망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교 희망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희망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은 인간적인 사고나 창의적 생각이 아닌 하느님의 전능한 현존에 근거합니다(시편 18,7). 그리스도교 희망은 구세주의 오심, 즉, 그리스도의 강생과 구속으로 인해 확인되었습니다. 희망의 근거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1코린 15,19).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외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희생하여 죽게 하셨고 죄인들에게 다시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을 부르실 때, 인간은 자신의 힘만

으로는 그 사랑에 온전히 응답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은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계명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느님께서 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 2. 이스라엘의 희망

히브 3,7-4,11절을 읽어보세요

희망은 이스라엘의 국가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에도 불구하고 약화되거나 소멸될수 없었습니다(미가 7,7-9). 희망의 기초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이사 40장).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직접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느님이 결코 멸망하시지 않으시리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바빌론 유배 이후에 메시아 사상으로 민족적 희망뿐만 아니라, 개인의 희망으로 더욱 강하게 강조되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은 성조 이사야를 통해 드러난 아브라함의 희망과 희생 안에서 하느님의 약속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로마 4,18). 이스라엘이 결국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믿음은 하느님의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충실 속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죽음과 죄악을 이긴 그리스도교 희망은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충실한 사람들은 “오소서, 주님 예수님!” 하고 외치며(묵시 22,20)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 3.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

히브 10장을 읽어보세요

신약에서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희망을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희망은 믿음과 사랑에 결부되어 이 세가지 덕목은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인간은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통으로써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통과 죽음을 거쳐 부활하리라는 확신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강하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희망은 우리의 행복인 하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굳게 간직해야 하는데,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히브 10,23). 우리는 주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티토 3,6-7). 희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 주신 행복을 바라는 덕이 됩니다. 희망은 사람들을 실망하지 않게 보호하고, 버림받을 때 언제나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고, 영원한 행복에 대한 기대로 마음을 열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예수님의 선교 초기부터 행복 선언 안에 제시되었습니다. 참다운 행복은 우리의 희망을 새 '약속의 땅'으로 들어 올리듯이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희망은 시련 중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로마 12,12).

### 4.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서 희망

로마 4장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교에서 전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가톨릭 전례는 한마디로 '희망의 전례'입니다. 특별히 성체성사에서 하나님 영광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강조됩니다. 우리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전례는 전부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희망으로 넘치고 희망으로 이끕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지만 완성은 세상 종말에 성취됩니다(골로 3,3-4).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믿음, 희망, 사랑의 향주삼덕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행위의 기초가 되며 그 행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신앙 안에서의 희망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의 힘만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의 행복인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합니다(히브 10,23).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티토 3,6-7).

희망은 사람들을 실망하지 않게 보호하고, 버림받을 때 언제나 힘을 북돋아 주고, 영원한 행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통을 끝까지 견디어 낼 수 있으며 자신이 행한 선행에 대해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1티모 2,4) 기도합니다. ☪

## 미사 바로 알기 (2) - 미사의 시작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모든 일에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예식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특히 기념식, 입학식, 시무식, 결혼식과 같은 공적 예식들에는 그 예식의 성격을 알리는 개회식이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미사에도 이처럼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준비하는 시작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 예식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 시작 예식의 도입

3세기경까지 초대 교회에서 성찬례는 독서로 시작되었습니다. 2세기 문헌인 유스티노의 「호교론」은 “태양의 날이라 불리는 그날(주일), 도시와 시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 모여,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오랫동안 사도들의 회상록이나 예언서를 읽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초기에는 시작 예식이라 할만한 형태가 없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 그리스도교가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부터 신자가 늘기 시작했고, 미사 거행 장소도 가정 교회에서 점차 넓은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행렬을 지어 성당으로 들어가던 관습은 4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점차 시작 예식으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각 예식의 의미나 기능이 뚜렷하지 않았고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과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진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입니다.

### 사제 혼자만이 아닌 공동체의 거행

미사를 시작하는 예절 규정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우들이 모인 다음, 사제는 봉사자들과 함께 제대로 나아간다. 교우들은 그동안 입당 노래를 한다.” 얼핏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내용이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문구와 비교해 보면 커다란 관점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 경본에서는 “사제가 준비를 마친 다음(Sacerdos paratus)” 미사를 시작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미사 경본에서는 “교우들이 모인 다음”(Populo congregato) 미사를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미사 거행의 주체가 사제 개인에서 하느님 백성인 공동체로 옮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주례 사제 혼자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백성으로 모인 공동체 전체가 함께 거행하는 전례가 미사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미사 전례가 신자들의 모임과 이들의 능동적인 참여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공동체의 특별한 품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당신께서 함께 하신다(마태 18,20)는 약속은 미사를 위해 모인 공동체에 특별한 품위를 부여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백성들은, 하느님 말씀을 듣기 위해(신명 4,9-13), 희생 제물을 봉헌하기 위해(2역대 29,32),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해(2역대 30,2), 축제와 율법서의 봉독을 위해(느헤, 8,2)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동방교회에서는 미사의 명칭이 ‘집회’나 ‘모임’의 뜻을 지닌 ‘시낙시스(Synáxis)’라고 불렀던 때도 있었습니다. 베네딕도 16세 교황님은 2008년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 강론에서 이런 공동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믿음으로 결합되어 그리스도이신 하나의 빵을 나눔으로써 한 몸을 이루도록 부름 받은 다른 사람들과 서로 만납니다. 우리는

국적, 직업, 사회적 계급, 정치적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분이신 주님의 현존에 머물기 위하여 세상 곳곳에서 모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모인 구성원들이 각기 불완전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공동체는 신앙과 강함의 표지가 됩니다. 하느님은 전례 공동체가 완성된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이들을 당신 백성의 지체로서 원하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 하느님께 나아가는 행렬

전례 거행의 주체인 신자들이 이같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 사제는 봉사자들과 함께 제대로 나갑니다. 입당 행렬은 4세기 이후에 교황이 성직자들과 함께 성당으로 들어가던 행렬에서 유래합니다. 사제와 봉사자들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비록 입당을 함께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행렬에 동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입당 행렬과 노래는 주님의 제단에 나아가며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는 믿음과 기쁨의 표현입니다. 행렬이 이루어지는 동안 높이 들어 올려진 십자가, 밝혀 든 초와 피어오르는 향, 아름답게 장식된 복음집,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는 장엄하게 거행되는 전례를 오감으로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행렬은 거룩한 노래의 선율에 맞추어 하느님께 나아가는 지상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보여줍니다.

### 입당하며 부르는 노래

침묵 속에서 거행되던 입당 행렬은 6세기를 거치면서 노래가 더해져 장엄하게 거행되었고, 이후 신자들도 노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입당 때 불리는 노래는 전례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마음을 결속하여 일치시키면서 참여자들을 전례 시기나 축제의 신비로 인도합니다(총지침 47항 참조). 요즘

과 같이 성가를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나, 혹은 제의실과 제대가 가까워서 입당 행렬이 생략되는 경우에는 짧게 입당송(Antiphona ad introitum)을 읊기도 합니다. 미사 경본에 제시된 입당송은 가사를 통해 그날 혹은 해당 하는 축일의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은 시편에서 취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날의 독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 본연의 모습을 찾는 작업

미사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교회를 이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사의 참 집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모으시려는 초대에 응답하여 우리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 안에서 우리 각자는 평범한 모임의 구성원이 아닌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공동체와 함께 미사를 시작하는 예절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께 향한 그들의 부족함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며, 하느님께 다시금 자신들의 단한 마음을 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러 성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곧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열어놓는 행위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를 떠나 성당에 들어서서 한목소리로 노래하며 미사를 시작하는 행렬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서서히 하느님 백성의 본래 모습을 찾아갑니다. 매일 본연의 빛나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는 기쁨의 초대에 기꺼이 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 성 암브로시오

St. Ambrose (축일: 12월 7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작은형제회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패션과 문화의 대표적 도시가 바로 밀라노(Milano)입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서 제일 부유하면서도 문화적으로도 힘이 있는 도시가 바로 밀라노입니다. 그리고 밀라노의 꽃은 바로 두오모 디 밀라노(Duomo di Milano), 곧 밀라노대교구 주교좌 성당입니다. 이 성당의 전례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암브로시오 전례를 따릅니다. 그 암브로시오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 암브로시오 주교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위대한 성 아우구스티노의 무덤도 밀라노에 있고, 최후의 만찬 성화로 유명한 벽화도 밀라노에 있는 도미니코회의 은총의 성모 수도원(Convento Santa Maria delle Grazie) 식당에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융성했고, 지금도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밀라노는 암브로시오 성인이 있어 더욱더 불멸의 도시입니다.

그러면 왜 밀라노대교구는 암브로시오 성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일까요? 암브로시오

오 성인의 이름과 생애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먼저 암브로시오라는 이름의 어원과 영성, 그리고 그 영성이 잘 드러났던 그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암브로시오라는 이름은 라틴어 **암브로시우스(Ambrosius)**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그리스어에서 그 어원을 찾습니다. 그리스어 **브로토스(βροτός)**는 그 뜻이 **‘사멸하는(Mortal)’**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부정접두사인 알파(α)를 덧붙여서, **‘불멸하는(immortal)’**이란 뜻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암브로토스(Ambrotos)가 ‘불멸하는’이라는 뜻이지만, 암브로시오도 큰 차이가 없이 ‘불멸하는 이, 불멸하는 이들의 모임에 속한 이’라는 뜻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기에 그렇게 풀이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생애가 ‘불멸의 업적을 남긴 하느님의 사람’이었나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가 왜 밀라노의 상징이 되었는가 하면, 그는 법학을 전공하였는데 자기가 일하던 지방의 장관인 프로부스(Probus)의 추천에 의해 370년에 밀라노의 집정관(로마 공화정 때에, 행정과 군사를 맡아보는 장관을 말함)이 되었습니다. 그가 밀라노 집정관이었을 때에 당시 주교는 바로 아리우스주의자(성자가 성부에게 종속적이라며 삼위일체를 부정하였던 서방 로마 가톨릭의 대표적 이단)였던 아욱센티우스(Auxentius) 주교였습니다. 그가 사망하자, 아리우스주의자들과 정통 신앙주의자들 사이에 격렬한 대립이 밀라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집정관이었던 암브로시오는 신자들에게

평화적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화해를 추구하자고 역설하였습니다. 당시 비신자였던 암브로시오의 이런 연설과 접근이 의외로 정통 신앙주의자로부터 지지를 받음으로써, 그가 밀라노의 후임 주교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세례를 받고, 8일 후인 373년 12월 7일에 주교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브로시오가 밀라노대교구장이 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게 되었고, 여전히 아리우스주의와 여러 이단에 동조하는 이들을 다루는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개입해야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였고, 자신이 주교직을 감당하기에 부당하다고 느꼈을 무

렵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행정과 법원으로부터 떠나서 주교직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해야만 하였다.” 이후부터 성경과 교부들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 후 엄격한 금욕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지속적으로 암브로시오 주교에게 밀라노의 성당들을 아리우스주의자들에게 내놓을 것을 종용하였지만, 그는 성공적으로 불멸의 항쟁을 끝까지 전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음과 같은 행동 원칙에 따라 사목을 수행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황제가 있지, 교회 위에 황제가 있지 않다”**며 교권이 세속 군주보다 더 상위에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그의 그런 불멸의 투쟁과 굳건한 신념에 충만한 설교가 387년 부활절에 성 아우구스티노를 마니교로부터 회개시켜 그로부터 세례를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밀라노 교회의 전례개혁을 단행하였고, 자신이 직접 지은 찬미가들과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한 여러 전례 텍스트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밀라노대교구의 전례는 암브로시오 전례라고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397년 성 금요일에 암브로시오는 그의 두 팔을 벌려서 마치 수난과 부활의 십자가 모양을 하며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였습니다. 그의 유해는 암브로시오 성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성당에 묻혀 있습니다. 1298년에 교황 보니파시오 8세께서는 암브로시오 성인을 교회박사로 선포하셨고, 지금까지도 교부학이나 교회사에서 아주 큰 업적을 남긴 불멸의 성인으로, 서방 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분으로 깊은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께서 여러 이단과 로마 황제의 압박 앞에서도 굳건한 신앙과 불멸의 수호정신을 지키셨기에, 오늘날 가톨릭교회가 유지, 보존되고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부패하고 어려운 사회 속에서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태산같이 높았어도, 절대로 그리스도교의 이상인 주님께 대한 향구하고 굳건한 신앙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회가 혼란 속에 휩싸여 있어 암담해 보일 때, 암브로시오 주교의 글과 영성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다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를 무척이나 존경하였던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신

암브로시오 성인은 여러 이단들에 맞서 아주 열정적이고 특별한 교회의 수호자이셨습니다. 여러 위협이 모든 것을 좌절시키고 있음에도, 그리스도의 용감한 용사요 교회의 충직한 스승이신 분이 암브로시오 성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저의 아버지처럼 공경합니다. 그분께서는 제게 세례를 주심으로 저를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지닌 가톨릭신앙에

대한 사랑으로 살았고, 그분의 담대한 용기와 그분의 고통들과 그분의 설교와 사목활동 가운데 그분에게 가해졌던 여러 위협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과 교회와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깊이 사랑했던 암브로시오 성인을 통해 오늘날 바람처럼, 연기처럼 흩날려 버리는 우리의 신앙을 반추해 보도록 합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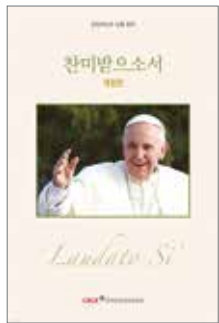
**“만약 교회에 황금이 있다면, 교회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 암브로시오-

##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 사회 교리와 「찬미받으소서」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의 이 메시지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며 그 징표를 읽고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톨릭 교회는 신앙인들이 복음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사회 교리’를 제시해 왔습니다.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정치, 경제, 노동, 인권, 평화, 생명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길잡이 역할을 해온 것이지요.

#### 생태 환경에 관한 사회 교리의 역사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가톨릭 사회 교리는 생태 환경 문제에 대

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역대 교황님들의 사회 교리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황 바오로 6세는 「팔십주년」(1971년)이라는 교서를 통해 환경 파괴의 문제를 최초로 경고하고 무분별한 자연 개발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전 인류에 관계되는 이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인들도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생태계 파괴의 문제를 시대적 현안으로 거론한 이후 환경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오던 교회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나서기 시작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199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인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평화」는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입니다. 생태 환경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첫 번째 교회 공식 문헌을 통해 교황님은 그동안 교회의 가르침을 새롭게 정리하고 새로운 생태학적 각성과 도덕적 세계관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또한 생태계 위기의 해결을 위한 투신이 신앙의 요청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문헌에 담긴 생태적 관점의 신학적, 영성적 요소는 교회 안에서 생태 환경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되지요.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재임 시절 ‘녹색 교황’이라고 불릴 만큼 생태 환경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은 2007년 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에서 성찬례의 생태 신학적 의미를 밝히고, 2009년 회칙 「진리 안의 사랑」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창조 질서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201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에서 교황은 피조물을 보호하지 않고는 평화를 얻을 수 없음을 역설합니다. 이 문헌은 특히 ‘인간 생태’와 ‘환경 생태’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통합 생태론의 발전에 영향을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기에 와서 생태 환경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더욱 활발해지고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이 지면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그동안의 생태 환경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집대성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칙이 그동안의 사회 교리 문헌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찬미받으소서」가 생태 환경 문제를 다룬 최초의 회칙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가톨릭 사회 교리 전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찬미받으소서」는 단순히 환경 보호에 관한 교황님 개인의 입장 표명이라기보다 오랜 사회 교리의 전통이 모여서 피워낸 꽃과도 같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라는 시구절처럼, 「찬미받으소서」가 빛을 보기까지 많은 예언자적 소리가 사회 교리 전통에 있어왔고 그것을 밑거름으로 이 회칙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자랄 수 있었습니다.

### 새로운 전통

한편,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사회 교리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그 전통을 넘어 더 멀리 새로운 가치를 뻗습니다. “교회의 사회 교리에 새로 추가되는 이 회칙”(15항)으로 인해 사회 교리의 주제는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온 창조계로 확장됩니다. “사회 교리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더욱 풍요로워질 필요”(63항)가 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찬미받으소서」를 통해 사회 교리의 폭은 훨씬 더 넓어지고 그 관점은 좀 더 통합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출판된 국내외 사회 교리 관련 책들을 살펴보면 모두 생태 환경 주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의 교회 문헌들도 생태 환경에 대한 사회 교리의 발전에 기여하였지만, 「찬미받으소서」가 ‘회칙’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의 차이는 큼니다. 야시다시피 회칙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

야 할 신앙의 지침이지요. 사목적 차원의 교황 문헌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회칙’을 통해 생태에 관한 사회 교리를 선포하셨으로써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하느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이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교회의 ‘공적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생태적 관심과 책임은 이제 더이상 특정한 사람들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마음으로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도덕적 의무’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가 가져올 파장과 새로운 변화를 예상했을까요? 이 회칙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는 회칙을 발표하지 말라는 압력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생태 위기 대응에 부정적인 정치인들과 거대 석유 기업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실했다고 하지요. 그렇게 이해관계에 얽힌 일부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학자들은 「찬미받으소서」의 준비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마치 국화 한다발처럼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보여주는 새로운 분위기에 낯설어하며 전통적인 교회의 이야기 안에서만 머물고자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음을 압니다. 하지만 교회의 전통은 단순히 옛날 것을 보존하고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옛 전통을 후손들에게 전달해줄 의무가 있지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갈 소명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사회 교리의 연속성 안에 머물며 ‘옛 전통’을 소중히 합니다. 동시에 그 사회 교리의 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전통’으로 발전시킵니다. 「찬미받으소서」를 따르는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미래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

## 재혼의 조건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2. 삶을 바라본다.

10년 전 사별한 안드레아는 50대 중반으로서 1년 전부터 성당의 지인 소개로 지방 성당 출신의 마리아를 만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교제중이다. 그녀는 50대 초반의 골드미스로 좋은 신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목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안드레아 눈에는 모든 것이 맘에 들었다. 대학생인 외동 딸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하였으나, 최근에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재혼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로 한동안 보지 못하던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열리면서 발생했다. 친구들에게 재혼 얘기를 꺼내자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너보다 훨씬 젊고, 초혼인 여자가 왜 너한테 시집을 오겠니?” “너는 사업도 잘되고 재산도 넉넉하니 너의 재산보고 오는 거야. 잘 생각해라.” “서로 좋아하면 혼인신고 하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동거해! 아니면 각자 생활하고 가끔 여행이나 같이 다니는 이성 친구로 지내던지... 너 나중에 재산분쟁 생기면 골치 아프다.” 친구들 말대로 동거를 하는 것이 맞는지, 계획대로 재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안드레아는 고민에 빠졌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새벽 미사로 향하는 안드레아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 Question

주변에서 관찰되는 중년 남녀의 재혼과 졸혼, 황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티모테오 1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각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각자의 체험 속에서 나누어 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세상의 소비주의와 자기만족의 탐욕스러운 마음과 가벼운 쾌락에 대한 무절제한 추구, 무더진 양심은 우리에게 세상의 만족만을 찾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쁨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2항]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Cornerstone



성호(聖號, 라:signum Crucis, 영: Sign of the Cross)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호는 모든 기도와 전례의 시작이자 끝이며, 어느 기도에서나 사용된다. 그리스도교에서 성호를 긋는 의식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기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십자성호는 악을 쫓고, 악을 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힘도 갖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십자가(十字架)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삼위일체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동시에 신자임을 알리는 표시가 된다. 성호는 초기 사도시대 이래로 교회에서 세례성사(洗禮聖事)와 견진성사(堅振聖事), 축복(祝福)과 축성(祝聖) 등 전례를 거행할 때와 신자들이 사사로이 기도할 때 사용되었으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성당에 들어가거나 방에 들어갈 때, 식사 전후에, 위험과 유혹이 있을 때 등 일상 생활의 모든 행동을 성스럽게 할 때 사용되었다.

성호를 긋는 의식은 2세기경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신자들이 서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한다. 13세기에 와서 오늘날 형태의 십자성호로 정착되었다. 13세기 이전에는 가톨릭에서도 정교와 똑같은 방법으로 성호를 그었다고 한다. 현재 가톨릭이 널리 사용하는 방법은 원래 베네딕도회의 관습이었는데, 이게 널리 퍼진 것이다.

성호에는 ‘작은 십자성호’와 ‘큰 십자성호’가 있는데, 작은 십자성호는 사도시대에 이마에 엄지손가락으로 성호를 긋던 것으로 4세기 이후로는 이마, 입술, 가슴에 작은 성호를 긋기 시작하여 지금도 미사 중에 복음을 듣기 전에 이 작은 성호를 긋는다. 이외에도 세례성사 또는 기타 강복(降福), 축성식의 경우에는 손으로 간단히 작은 십자성호를 긋는다. 큰 십자성호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11세기경부터 교회에서 쓰기 시작하였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왼손을 먼저 가슴에 붙이고 오른손가락을 모두 펴 한데 모아 성호경(聖號經)과 함께 이마에서 “성부와”, 가슴에서 “성자와”, 왼편 어깨에서 “성”, 오른편 어깨에서 “령의” 하여 십자를 이룬 후, 오른손과 왼손을 가슴에 합장(合掌)하여 붙이면서 “이름으로, 아멘” 하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왼손 엄지손가락 위에 십자형을 이루어 겹쳐 놓는다.



성부와  
(이마)

성자와  
(가슴)

성  
(왼쪽어깨)

령의  
(오른쪽어깨)

이름으로 아멘  
(합장)

출처. 바오로딸컨텐츠

### 고전 음악을 듣다

## 세자르 프랑크 -

# ‘생명의 양식’과 오르간 교향곡: 그 떨림의 미학

조병선 바오로\_청주대 법학과 교수

‘파니스 안젤리쿠스(Panis angelicus)’로 시작하는 ‘생명의 양식’은 누구나 들어보았을 성가곡이다. 맹인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대표곡으로도 인기 있는 곡이다. 이 곡의 작곡가가 이번 호에 소개할 세자르 프랑크(César Franck, 1822-90)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유독 클래식 음악에만 취약했던 프랑스를 베를리오즈에 이어 또 한 번 세상에 크게 알렸다.

특히 신앙인에게는 이 곡의 가사도 너무나도 좋다. 보통 그리스도교와 이방 종교의 가장 큰 차이를 성만찬(Eucharist)에 둔다. 이방 종교는 신이 인간을 먹지만, 반대로 그리스도 교회의 신은 오히려 인간에게 먹힘을 당한다(아래 가사의 ‘manducat dominum’). 피조물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새 생명을 얻게 만드는 신,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가! 만일 이런 의미를 신학적으로만 설명하고 영성체의 의식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경이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단연코 아니다! 직접 영성체를 할 때 우리는 전율한다. 세자르 프랑크는 그 신비로운 의미를 음악화하였다. 1872년에 하프, 첼로, 콘트라바스를 반주로 한 ‘생명의 양식’을 작곡하고, 후에 그의 ‘미사 A장조 (op.12, FWV 61)’에 영성체송으로 추가하였다. ‘생명의 양식’의 라틴어 가사를 거의 직역으로 소개하면,



CECILIA BARTOLI

Sospiri

Release Date: October 4, 2010

Duration: 01:47:54

Label: Decca

UPC: 00028947825586

Prestige Edition: CD DDD 478 224-9 DH 2

Panis angelicus, fit panis hominum 천사들의 빵이 사람들의 빵이 되었다.

Dat panis coelicus figuris terminum 하늘에 속한 빵이 형상으로 표현되는 끝을 보여주네.

O res mirabilis, manducat dominum 오~ 신비로운 일이며, 주님을 먹여주시다니!

Pauper, pauper, servus et humilis 가난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종에게 (먹여주시다니)

Pauper, pauper, servus et humilis 가난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종에게

음악가 중 보기 드물게 신심이 깊었던 프랑크는, 프랑스 음악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고 평가받지만 사실은 벨기에 출신이다. 일찍이 세자르의 천재성을 알아본 아버지는. 명문 파리음악원에 아들을 입학시키려고 벨기에 국적을 포기하고 프랑스에 귀화할 정도로 아들에게 열성을 쏟았다.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까지도 간섭하는 아버지의 과보호에 처음으로 한 반항이 그의 결혼이었다.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으로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파리 7구에 있는 ‘성 클로틸드 대성당(Basilique Ste-Clotilde)’의 오르간 연주자로 취직을 하여 32년간이나 봉직하였다. 평생 오르간 연주자를 하면서 당연히 오르간 음악의 대가였던 독일 바흐의 음악을 수용하고, 베토벤과 같은 독일의 찬란한 음악적 전통을 평생 연구하면서 프랑스 음악에 접목시켰고, 만년에야 명성이 높아져 모교 파리음악원의 교수로 초빙되었다. 파리음악원에서 높은 인격으로 제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 그를 추종하는 이른바 ‘프랑크 악파’가 형성되어, 배상 당디(Vincent d’Indy)와 같은 프랑스 근대 클래식의 대가들이 모두 그의 제자였다.

프랑크가 죽기 1년전 1889년 초연되었던 유일한 교향곡 d단조(FWV 48)는 특이하게 3악장으로 구성되었고 ‘오르간 교향곡’이라는 별칭이 붙어있다. ‘순환형식(forme cyclique)’이라고 불리도록 ‘세 음 동기(세 음이기에 그 ‘화성’에 집중)’가 질문하듯 전 악장에 걸쳐 계속 나온다. 물론 모두 3개의 동기가 나오지만 모두 이 동기를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 과연 처음 렌토의 느린 서주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의 인생의 의미일 것이다. 이는 3악장에서 비로소 새로이 변형된 ‘환희의 동기’로 해결되는데, 이 곡을 자주 연주하였던 지휘자 스토크프스키는 ‘프랑크가 교회에서 나와 세속의 친구와 기쁨을 나눈다’라고 표현하였다. 단순한 ‘코랄’풍의 동기였기에 그렇게 해석하였을 것이지만, 또한 장엄하기도 하다. 프랑크의 교향곡은 그가 봉직했던 고딕성당과 분리할 수 없는 장엄한 오르간이 중후함을 더해준다. 젊어서 파리의 마들렌 성당에 잠시 봉직하였던 카미유 생상스(Camille Saint-Saens, 1835-1921)가 1886년 작곡한 교향곡 3번 c단조 Op.78 ‘오르간’ 2악장(2악장 구조이지만 각각의 악장이 다시 두 파트로 나누어지므로 실질적으로는 3악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오르간이 쓰여 파란을 불러일으켰지만, 프랑크의 교향곡은 보다 더 중후하다. 오스트리아 린츠의 성 플로리안 수도원(Stift Sankt Florian)에 봉직하였던 안톤 부르크너(Anton Bruckner, 1824-96)가 오르간 교향곡의 전통을 따라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오르간이 주는 화성의 울림은 성당의 웅장한 건축물에서 직접 듣지 않고는 정말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마치 영성체를 할 때만 우리가 신앙의 의미를 체감하고 전율하는 것과 같이, 오르간은 공기를 몰아치는 울림의 악기로 먼저 몸이 떨려야 정신도 전율시키기에 종교악기의 대명사가 된 듯 싶다. 파리에 가면 프랑크의 쌍둥이 탑이 돋보이는 성 클로틸드 대성당, 생상스의 마들렌 대성당을 둘러보자. 오스트리아를 간다면 린츠의 성 플로리안

César Franck  
**Mass in A-Major op. 12. FWV 61**  
 Edith Wiens | Raimundo Mettre | Ivo Ingram  
 Philharmonie Schwäbisch Gmünd | Chor der Philharmonie Schwäbisch Gmünd  
 Hubert Beck  
 Release Date: 1993  
 Duration: 41:38  
 Label: Audite



수도원의 성당도! 그러나 경건한 오르간의 울림만을 생각하며 프랑크를 부르크너와 같이 신비한 종교의 세계로만 평가하면 무언가 하나가 빠진 것이리라. 프랑크의 파리를 떠올려야 한다.

파리는 온갖 예술품이 가득한 얼마나 사랑스런 도시인가!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작곡되어 스스로 ‘사촌’이라 불렀던 작품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FWV 8)’를 떠올리면, 따뜻한 바이올린 선율로 젊은 연인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다. 66세의 프랑크가 들려주는 그렇게 세련되면서도 감미로운 사랑의 선율이란! 프랑스만이, 파리만이 보여주는 섬세한 감정이 녹아있다. 프랑크는 생애 마지막에야 명성을 얻어 파리음악원 교수가 되었지만, 활동한 거의 평생 32년을 성 클로틸드 대성당에 봉직하며 세속의 영육에서 떠나있었다. 파리 7지구, 로댕 미술관에서 오르세(Musée d'Orsay) 미술관으로 걸어가는 길에 만날 수 있는 쌍둥이 모양의 대성당이다. 파리의 성당 치고는 늦게 1856년 건축이 시작되었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시작하여 그토록 길고도 숨가쁜 혁명의 시대가 주춤거리며 제2제정의 나폴레옹 3세(1852-1870 재위)가 들어서고, 프랑스의 영광을 되찾고자 파리가 전면적으로 재개발되면서 사방으로 대로가 뚫리고, 빈부격차 속에 신흥 부르조아와 함께 가벼운 오페레타가 떠들썩했던 시절, 그 격동의



전환기에 프랑크는 높이가 25m나 되는 첨탑 두 개가 마치 쌍둥이와 같이 위용을 자랑하는 대성당 입구에 당대 최고의 오르간 제작사 ‘아리스티데 까바유-콜(Aristide Cavallé-Coll)’의 ‘알렉산드르 킴망(Alexandre Guilmant)’이 제작한 걸작 오르간 - 당시 최대규모의 오르간 - 을 연주하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흔히 클래식 음악의 역사에서 변방으로 취급되는 프랑스, 그러나 그 정말로 정의하기 어려운 ‘프랑스적 에스프리(esprit)’를 바흐의 오르간(바흐도 원래는 오르가니스트였다)과 베토벤의 화성 · 구조를 탐닉하였던 프랑크의 작품과 같은 프랑스의 근대음악에서 느낄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베를리오즈-프랑크-생상스-라벨-드뷔시로 이어지는 프랑스 근대음악을 사랑한다. 이쯤에서 왜 그런지 필자 개인의 경험과 감성을 그 이유에 추가하자. 1986년은 필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고 짧은 스포츠머리 그대로 독일로 유학을 떠난 해였다. 그 해 파리는 과거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만든 오를레앙 철도회사의 종착역을 개조하여 오르세 미술관으로 개관한다고 하여 화제였고, 필자는 법대학장으로부터 박사과정 입학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은 후에 어려운 박사과정을 앞두고 조금 숨도 돌릴 겸 오르세 미술관을 찾았다.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이 거의 모두 이관되어 있어 필자의 눈을 황홀하게 하였다. 여기 왔으니 가까운 로댕 미술관을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질서정연했던 독일의 거리에 비해 오히려 걸을수록 (빈자와 부자가 함께 살기에) 상대적으로 지저분한 파리의 거리가 오히려 정겨웠다. 찾아가는 길에서 우연치 않게 마치 쌍둥이처럼 드높게 서있는 성 클로틸드 대성당이 눈에 들어왔고, 기억을 더듬어 세자르 프랑크를 떠올렸고, 기다려 연주회를 갔었다. 당시에는 파리 최대의 명작 오르간인줄도 몰랐었지만, 기다린 연주회의 장엄한 오르간 소리에 전율하였다. 오르간의 울림과 함께 진동하는 혁명과 예술의 공기가 20대의 내 젊은 폐 속에 가득 담겼다. 그 후 한참의 세월이 흘러갔다. 50대에

**FRANCK: SONATA FOR VIOLIN & PIANO in A-major**  
**BRAHMS: TRIO FOR VIOLIN, HORN & PIANO in E Flat Major, op. 40**  
 Vladimir Ashkenazy: Itzhak Perlman: Barry Tuckwell  
 Release Date: 1984  
 Duration: 55:36  
 Label: Decca  
 UPC: 00028948328796



파리 시테섬의 역사적인 대법원 건물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갔을 때, 도착하던 날 시차로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 5시경에 차라리 뛰자고 세느 강변을 따라 노트담 대성당까지 조깅을 하다가 아주 작은 성당(너무 작아 성소에 가까웠는데 이름도 모름), 모두 잠자는 새벽, 촛불 속의 수녀님들의 성가가 울려 퍼져, 멈추어 선 채 또 전율하였다. 비록 젊음이 지나간 내 가슴이었지만, 그 느낌은 젊음으로 돌아가 무려 30년 전 들었던 성 클로틸드 대성당의 울림 그대로였다. 베를리오즈처럼 난봉꾼이었던, 프랑크처럼 성스러웠든 모든 프랑스 종교음악에는 가톨릭 국가 프랑스만의 에스프리가 담겨 있다. 필자는 가능하다면 -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하겠지만 - 60대에도 여전히 직접 파리가 주는 혁명과 예술의 에스프리를 느끼고 전율하고 싶다. 파리의 프랑크는 세상을 떠났지만 교향곡을 남겨 여전히 ‘세 음 동기’의 화성으로 끊임없이 필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인간에게 삶이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또 필자는 과연 무슨 응답을 할 것인가? 분명하게 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프랑크가 교향곡에서 ‘환희의 동기’로 궁극적인 해답을 주었듯이, 결국은 짧은 생으로 마감할 우리의 생활은 세 음 -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이웃 - 을 기쁘면서도 찬란하고 장엄한 화성으로 울려야 할 듯하다. 🎧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 구도 시 밖 나들이 - 예루살렘, 세 번째

심연선 소화테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두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 구도시를 거닐어 보았으니, 이제는 성곽 바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구도시 북쪽 성곽에 문이 세 개가 있는데, 그중 가장 가운데 문인 다마스쿠스 문으로 나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난전으로 유명한 지역이지요. 나이 지긋이 드신 팔레스타인 할머니들이 여러 종류의 채소들을 앞에 늘어놓고 앉아서 파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시골 시장에 가면 볼 수 있는 모습이어서 왠지 모르는 정겨움이 마음에 슬며시 묻어납니다.

구시가지 성 안을 빠져나와 오른편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왼쪽 길 건너에 고풍스러운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록펠러 박물관(Rockefeller Archaeological Museum)입니다. 팔레스타인 최초의 고고학 박물관이지요. 입장료가 무료라는 즐거움이 있고, 아름다운 건축미를 뽐내는 곳이니 시간을 내어 방문해 볼 만합니다.

록펠러 박물관이 있는 지역은 쉽게 말해 동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있는 곳입니다. 조금은 번잡스러운 골목을 따라 다시 북쪽으로 발걸음을 조금 옮겨보면, 오래된 건물들이 여기저기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 지어졌던 수도원, 학교 건물들입니다. 19세기에 시작되어 번창을 이루었던 고고학 발굴, 그리고 열강들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심 등이 병행을 이루어 성 바깥에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이때 많은 수도자들도 단순한 순례가 아닌 공부와 팔레스타인 지역 선교 목적으로 머물게 됩니다. 사해문서 연구자로 유명한 도미니코 수도회 롤랑 드 보(Roland de vaux) 신부님이 계셨던 에콜 비블리끄(ecole bibliotheque)가 이곳에 있습니다.

성곽 안, 구도시 못지않은 구불구불한 미로 같은 길을 따라가면 작은 회색 철문에 보일까 말까한 돌로 만들어진 문패 아래로 더 작은 초인종이 있습니다. 간략한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면 문을 열어줍니다. 안으로 들어

가면 지난번 오스트리안 호스피스와 마찬가지로 바깥과는 다른 모습의 고풍스러운 뜰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곳이 많습니다. 찾아다닐 때는 상당히 고달프지만 찾으면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은 기쁜 감정이 듭니다. 왜 이렇게 ‘나를 찾아보시오’ 하듯 작디작은 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해매게 만들었나 생각해보니, 잦은 전쟁과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싶으면 다시 차가워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관계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비밀장소를 찾은 마음을 어루만지며 성당에 잠시 앉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를 바쳐봅니다.

조금 더 발걸음을 북쪽으로 옮기면 아메리칸 콜로니 호텔(the American colony hotel)이 보입니다. 이 주변은 큰 호텔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그랜드 코트 호텔이 한국에서 오신 순례자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조금 낫기는 해도 한국보다는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철 순례를 많이 하시는 편인





에콜 비블리끄

데 이 무렵 호텔에서 반가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아메리칸 콜로니 호텔은 머무르기에 다소 비싼 비용이 들어서 단체로 순례하시는 경우 이곳을 이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곳 카페나 바 정도는 이용하시기에 큰 부담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슬람교는 술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무슬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술을 구입하실 수 없지만, 그리스도교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맥주나 와인을 드실 수가 있지요. 특별히 이곳은 타이베 ‘tayber beer’ 생맥주를 마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마시는 맥주와는 다른 맛을 즐기실 수 있기에 권해드립니다. 맨질맨질한 돌길과 오르내리는 언덕으

로 되어있는 예루살렘에서의 도보 순례가 발을 많이 피곤하게 하는데, 신발끈을 조금 느슨하게 풀고 모자를 벗고 중동의 향기가 물씬 나는 아름다운 곳에서 시원한 타이베 맥주 한잔 하시면 피곤이 사르르 풀리는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호텔들이 늘어서 있는 큰 도로를 건너면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메아 쉐아림(mea shearim)**이라고 불리는 마을인데요 검은색 양복, 혹은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쓴 남성들과 가발이나 보자기



아메리칸 콜로니 호텔

를 쓰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통파 유대인, 혹은 종교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엄격하게 유대교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산 청학동에 조선시대의 예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 분들처럼 현대 문명과 교육 대신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금 다녀온 팔레스타인 동네와 비슷하게 정신을 쏙 빼놓는 골목골목과 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오면 **벤 예후다(Ben yehuda)**라는 거리를 만나게 되는데 젊은이들이 나와서 친구도 만나고 밥도 사먹고 그러는 소위 “시내” 같은 곳이지요. 이곳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올



마하네 예후다 시장



하누카빵

라가면 재래시장인 **마하네 예후다(Mahane yehuda)**를 만납니다.

제가 안내를 하면서 종종 듣던 요구사항이 이스라엘 재래시장을 가보고 싶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례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기에도 그것이 반영될 수 없었지만 최근에 여유를 가지고 찾으시는 분들이 자유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자유여행을 하신다면 이곳에서 간단하게 점심 한끼 드셔도 괜찮을 거 같네요. 생선튀김에 시원한 맥주 한잔이던지, 싱싱한 재료를 넣은 생면 파스타 한그릇이라든지, 구수한 후무스를 맛볼수 있는 빵집이라든지, 재미있는 가게들이 이곳 저곳에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문 근처의 난전 저리가



이스라엘박물관

라 목청 터지게 ‘과일 사세요’를 부르짖는 유다인 상인들도 많이 볼 수 있는 사람 냄새 진하게 나는 시장입니다.

약 3km 떨어진 곳에(차로 10여분, 도보로 30분) **이스라엘 박물관**이 있습니다. 방대한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 쉽게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구약성경 구절과 함께 유물들이 나열되어있는데, 우리에게는 성경말씀이 그들에게는 역사라는 것이 재미있고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고고학관 뿐 아니라 미술관도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기에 시간을 내어 방문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유명한 사해사본 박물관도 꼭 둘러보시고 시간이 없으셔도 꼭 보셔야 할 것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모습을 50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내려다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 그곳에서 성전의 모습, 골고타, 실로암, 올리브 산 등을 보시면 신약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약 4km 떨어진 곳, 에인 케렘 성지를 가는 입구, 헤르츨 산에 **야드 바셈(Yad vashem)**이라는 홀로코스트 추모관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야했던 600만 명의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산을 찌르는 칼날의 모양으로 건축되어



야드바셈 어린이 추모관

있는 건물 사이로 생존자들의 증언,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촛불들이 하나씩 꺼졌다 켜졌다 하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는 단어들 이 들리는데, 그 공간은 희생된 150만명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곳이고, 들려오는 단어들은 그 이름들입니다.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이곳이 산이고, 나무들이 있기에 큰 숨을 내어 쉴 수 있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성탄이네요. 예루살렘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보다는 하누카를 기념하는 곳이 많아 그리스도교인 지역을 제외하면 썰렁함



무덤성당의 탄생구유

까지 느껴지는 지구상에 얼마 안되는 낯선(?) 지역중에 하나인데, 그 적적한 마음을 녹여주는 것이 하누카 때 맛볼 수 있는 수프가니아 **החניניה**입니다. 기름에 튀긴 빵 - 도너츠 인데요. 우리나라 추석에 송편이 보이듯이 시장에 이 빵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하누카이고 연말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지요. 예루살렘은 고도가 높은 지역이기에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시내가 영망진창이 되기도 하지만 낭만적인 하루를 보내게 해주는 눈!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고 따뜻한 한 해 마무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

##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와 ‘권태’라는 이름의 악덕

최대환 신부·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 우리 시대의 영적 위기

“내 본당은 여느 본당과 같다. 모든 본당들이 서로 비슷하다. 물론 오늘날의 본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제 노랑풍트의 주임 신부님에게 어느 본당에서나 선과 악은 무게중심을 아주 아래쪽에 둔 채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달리 말하자면 선과 악은 밀도가 다른 두 액체처럼 서로 섞이지 않은 채 포개져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

내 본당은 권태에 먹혀 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하고많은 다른 본당들과 마찬가지로! 권태가 본당 모두를 우리가 보는 앞에서 아귀아귀 먹어 대는데도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언젠가 우리도 그에 걸려들어 몸속에서 암세포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속에 지니고도 아주 오래 살수도 있으니 말이다.” (조르주 베르나노스,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 정영란 옮김, 민음사, 2009, 7-8쪽)

위에 인용한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의 첫 대목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

품 전체에서 주인공인 젊은 사제가, 그리고 작가가 감행하는 영적 투쟁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르나노스는 근대화가 완성되는 한편, 인간 소외 현상이 깊은 심연처럼 심화된 20세기 초반의, 그리고 우리 시대 역시 외적 형태는 다르지만 여전히 해당되는, 교회 안의 영적 위기의 본질을 예언자처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폐부를 찌르는 통찰은 그가 예리한 비판가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의 현실을 한없는 아픔으로 여기며 끝까지 지고 가는 진정한 교회의 사람이하고자하는 진심을 지니고 있기에 나온 것이기에 더 통절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러한 영적위기에 베르나노스는 ‘권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권태라는 영적 해악은 사실은 일상적이고 무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제대로 인식하기도, 대결하기도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교회 내의 여러 문제는 이러한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일종의 ‘분위기’와 같은 영적 풍토 속에



서 점점 굵아가고 있습니다. 쇠신도, 위기의식도 느끼기 어렵게 하여 진정한 변화의 필요성을 떠올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정신에서, 복음의 기쁨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속적이고,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교회의 모습은 내적으로 신앙의 힘과 확신을 점점 잃어가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실천적 불신앙이 징후처럼 드러난 것입니다.

#### 권태라는 악덕

오늘날 교회 위기를 그 뿌리에서부터 성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발걸음을 진력을 다해 촉구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베르나노스가 감지한 교회의 영적, 실천적 위기와 일치합니다. 교황이 베르나노스가 이 작품에서 사용한 ‘악마의 가장 귀중한 영약’인 ‘슬픔’이라는 표현을 『복음의 기쁨』에서 언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슬픔

은, 진정한 통회나 연민에서 오는, 인간의 참된 행복의 길인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이 아니라, 영적, 윤리적, 정신적 무관심과 무감각, 즉 권태에서 오는 존재론적인 절망과 허무로 이어지는 슬픔을 말합니다. 『복음의 기쁨』의 이 대목을 연재의 첫 회에서 소개했었지만, 베르나노스의 이 작품을 오늘의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옮겨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위협이 점차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교회의 일상생활에 스며든 회색의 실용주의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이 약해지고 편협해집니다.’ 그리하여 무덤의 심리학이 전개되어 그리스도인들을 서서히 박물관의 미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실과 교회와 자기 자신에게 환멸을 느껴, 희망이 없는 막연한 슬픔에 잠기는 유희를 끊임없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악마의 가장 귀중한 영약’인 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빛을 비

추고 생명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나, 결국 그들은 어둠과 내적인 무기력만 남고 서서히 사도다운 열정을 소진시켜 버리는 것들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83항).”

한편, 베르나노스는 이어지는 대목에서 녹진한 안개 속에 잠긴 풍경처럼 영적 활력을 잃은 분당의 모습을 바라보는 젊은 신부의 심경을 절묘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어제 길을 걷는 중 든 것이다. 가슴 가득 들이켜면 증기처럼 복부 깊은 곳까지 퍼져 내려가는 안개가 내리고 있었다. 생바스트 언덕에서 본 마을은 문득 11월의 을씨년스러운 하늘 아래 너무나 폭 짓눌려 가라앉은 채 비참하게 보였다. 마을 위 사방으로 수증기가 피어 올랐고 마을은 탈진한 가여운 한 마리 짐승마냥 물기 어린 풀숲에 그냥 누워 있는 것 같았다. 마을 전체라고 해 봐야 얼마나 작은지! 그런데 바로 이 마을이 내 분당이다. 내 분당이건만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 마을이 밤의 장막 속으로 가라앉으며 시야에서 사라져 가는 것을 슬프게 지켜보고 있었다. 좀 더 지체했더라면 전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말이다. 마을의 고독과 나의 고독을 이토록 통렬하게 느낀 적이 없었었다.” (8쪽)

베르나노스는 공감각적 이미지들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권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죽음으로 향하는 교회의,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분당’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공동체의, 병든 모습에 깊은 고통과 연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다 더 존재론적이고 신학적인 어조로 권태라는 악덕에 대해 성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권태로 파먹히고 있다고 위에서 말했다. 물론 이 말을 이해하자면 약간은 속고를 해 보아야 한다. 금방 납득이 가는 말은 아니기에 그렇다. 권태, 그것은 일종의 먼지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먼지를 우리 모두는 오가면서 들이마시는데 하도 입자가 고운지라 이에 걸려도 바드득거리지 않는다. 그러나 1초라도 오가는 걸음을 멈추면 이 먼지는 얼굴과 양손을 포함해 우리를 완전히 덮어 버린다. 이런 재의 비를 털어 내려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세상은 마냥 설쳐대는 것이다.

세상은 오래전부터 권태와 친숙했고 권태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조건이라고 말할 할지도 모른다. 권태의 씨앗은 이미 온 사방에 흩어져 싹이 나기 좋은 땅 여기저기에서 발아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권태, 이 나병의 이러한 감염과 확산을 사람들이 이토록 겪은 적은 여태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궁극에 이르지 못한 채 뒤

틀려 버린 절망, 절망의 이 추한 형태는 분명 발효하며 와해되어 가는 그리스도교계 전체의 모습입니다.“ (9쪽)

권태를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악덕이자 진정한 영적 위기의 본질로 보는 베르나노스의 견해는 매우 ‘실존적’입니다. 실제로 현대의 실존주의 철학은 이러한 ‘권태’의 심정에 대해 현상학적이고 실존론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장 폴 사르트르의 철학서나 철학적 소설들, 또는 시몬 드 보봐르의 문학작품, 혹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안에 나오는 ‘현존재’의 기본과 심정에 대한 유명한 현상학적 분석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신론적 경향의 실존주의 이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실존주의의 선구자’들이 이었던 위대한 종교 사상가들이 권태야말로 신앙의 실천과 영성에 있어 중대한 위기가 도래했다는 가장 분명한 징후이자 또한 영적 위기의 뿌리라는 통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몇 명의 가장 유명한 이름을 들자면 파스칼과 키엘케고르와 도스토예프스키가 될 것입니다. 베르나노스를 읽으면서 종종 도스토예프스키의 예언자적 비전들이 떠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역시 그의 가장 기이하면서도 압도적인 작품이라 할 대작 『악령』에서 악

의 화신으로 형상화한 주인공 스타브로킨의 악행의 뿌리를 ‘권태’에서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도스토예프스키 연구가 석명중 교수의 저서에서 이 주제에 대한 훌륭한 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명중, 『『악령』: 『권태라는 이름의 악』, 『도스토예프스키 깊이읽기』, 열린책들, 2021, 221-251쪽)

‘권태’가 가장 위험한 악덕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악의 뿌리이기도 하다는 영적 인식은 사실 교회의 영성사에서 초창기 사막의 수도영성 이래 근본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악덕으로서의 권태를 사막의 영성가들은 ‘아케디아’라고 불렀습니다. 슬픔과 우울과 절망과 나태와 내적 분열 등의 여러 면모들이 아케디아에 수반됩니다. 베르나노스는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황폐함을 그려내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한 영적 투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베르나노스는 이 작품에서 ‘권태라는 악덕’에 맞서는 영적 투쟁의 길에서 유일한 희망은 ‘어린이다움’이라는 것을 젊은 사제의 짧은 생애를 통해 보여줍니다.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에 나타난 ‘어린이다움’의 영성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 호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형중 프란치스코\_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교수

‘의사’는 애초에 내가 바라던 직업은 아니었지만, 지금껏 일용할 양식과 집을 제공하여 소중한 가족을 꾸리도록 해주었다. 신문기자 와 외교관을 꿈꾸던 소년(큰아들)은 수년간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회사에서 해고당한 아버지의 한 마디에 고등학교 1학년 전과기록(문과에서 이과로)을 남기게 되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수학과 과학 과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이때부터 담배와 커피는 평생 벗이 되었다.

의사가 되어 타인의 삶에서 잠시 스쳐가는 미풍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처음부터 전공 선택이 잘못되었다. 신경외과 인턴을 돌 때, 토요일 저녁에 시작된 젊은 교통사고 뇌출혈 환자의 응급수술은 연이은 환자들로 인해 월요일 새벽녘에야 끝나게 되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신경외과 수술실은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인생이란 건 참 모른다. 하루에도 열두번은 후회했던 신경외과 의사 생활을 귀신에 홀린 듯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르렀다.

의대 교수, 특히 응급수술이 일상이 되어버린 뇌혈관외과 전문의의 삶의 질은 정규시간에 근무가 끝나는 많은 교수들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리 약속을 잡기가 겁나고, 주말과 명절, 그리고 가장 취약한 시간대 연휴 마지막 날 밤에 불려나가는 기분은 본인인 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다. “저는 교수님처럼(아빠처럼) 살기 싫어요.”

의사의 의료행위는 구구단을 외우듯이 단순할 것처럼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 진료라는 것은 하나의 질문에 최소 연필 한 다스(또는 열두 개)의 문제풀이 과정과 답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환자란 숨을 쉬는 생명체로서 같은 병명을 가졌지만 조금씩 다른 인체구조, 살아온 궤적, 앓아온 병들로 인해 완전히 다른 개별적 존재이다. 얼마 전 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선수들이 흘렸을 땀과 눈물을 떠올렸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끊임없는 자기연마를 해왔을 터지만 연습과 실전은 다르다. 그렇게 기대를 모았던 선수들이 까닭모를 이유로 어이없는 실

수를 한 후 고대했던 메달을 따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엄청난 야유를 받는 것을 보게 된다. 의사의 진료행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의사는 신이 아니고 신이 될 수도 없거니와, 다만 수술하는 순간만이라도 나의 온전한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그분에 빙의되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세례를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 의사란 어떤 존재일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타협이 가능한 소위 관용(폴레랑스)의 범주 안에 그려진 캐릭터는 그래서 그 사회가 해당 직업군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신세계, 2012>에서 조직 내 반대파에 의해 심야에 교통사고를 당한 석동출 회장은 밤샘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게 된다. 수술실 앞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체구의 수많은 정장 차림의 남성들 앞에서 집도의는 사망선고를 하게 된다. 이 때 조직의 넘버3는 의사의 목살을 잡고 말한다. “비싼 돈 받아 먹었으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야 할 거 아냐. 여기 책임자 나오라 그래.” 섬



슬기로운 의사생활  
2020.03.12. ~ 2020.05.28. 12부작  
2021.06.17. ~ 2021.09.16. 12부작  
TV드라마 | 한국 | tvN | 시즌1, 2



신세계  
New World, 2012  
범죄 | 한국 | 134분



우아한 세계  
The Show Must Go On, 2007  
범죄 | 한국 | 112분

똑하지만 기시감이 드는 상황이다.

히포크라테스와 허준으로 대변되는 가부장적인 의술 행위는 현재는 여러 가지 법적인 계약으로 대표되는 상호존중의 상거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의사와 환자의 진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겠지만, 이와 더불어 직접 눈을 맞추고 공감하는 전인적 접근 역시 빼놓을 수 없다. A.I.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가 궁금한 부분이다. <우아한 세계, 2007>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되는 송강호는 진료 내내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모니터만 보면서 뇌파리는 의사의 말들에 황당해 한다. “강인구 씨죠? 41세고. 술 좋아하시죠? 식사도 제때 못 드시고요. ... 당뇨 오셨네요. 혈압도 안 좋고, 일단 2주 정도 약 처방 해드릴게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달라는 강인구의 요청에 의사는 밖으로 나가면 간호사가 설명을 할 거라고 하자 당뇨가 감기냐고 화를 낸다. 물론 극단적인 예이겠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진료 현장에 오히려 대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40대 초반이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돌싱인 99학번 의대 동기 외과계열 교수 5명(각자의 자리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인정받는 엘리

트들이다)이 주인공인 대학병원을 다룬 드라마가 있다. 꿈만 같은 병원이다. 노조와의 갈등(노조파업)도 없고, 직장 내 폭언, 폭력, 태움 문화도 없으며, 의료사고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보호자들도 없다. 병원은 또 얼마나 쾌적하고 현대적인지, 병원 경영진은 얼마나 협조적인지, 환자분들은 얼마나 매너가 좋은지 모른다. 이런 병원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의 ‘의사’란 의사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원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도 이상적이고 오글거리는 현실감없는 드라마이지만 경청해야 할 부분은 있다. 독수리 오형제들은 한결같이 환자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공감하려 애쓴다. 여동생의 간경변증이 악화되었지만, 본인이 가족 내 공여자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의 간을 이식해야 되자 민감해진 큰아들은 실재없이 의료진에게 컴플레인을 하고, 급기야 병원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인턴에게 이익준 교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설명한다. 감정이입된 인턴은 이전 본인의 경험을 떠올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이식 수술 후 떡을 보내준 까칠한 보호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 수술을 한 지 오래된 환자라도 정기적인 외래가 잡힌 경우, 전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

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사실상 완치’라는 담당 교수의 말에 눈물을 글썽인다. 하지만 설명을 하는 내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어디 실수라도 하지는 않는지 감시하며 큰 병원 이야기를 꺼내는 그들의 입장을 완전히 공감하기는 어렵고 자존심 상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슬기롭게 의사생활을 하려면 환자 입장을 환자보다도 더 잘 헤아려야 하는 모양이다.

안전한 출산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임신부는 담당의사를 양석형 교수로 바꾸어달라고 부탁한다. 실낱같은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의사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사산하게 된다. 미안함과 죄책감에 퇴원 시 직접 환자를 보지 못한 그는 산과 교과서 첫 장에 있다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라는 글귀로 마음을 대신한다. 때로는 긴 말보다는 이런 함축적인 한 문장이 사람의 마음을 대신할 수도 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쥐뿔 안의 치즈 한 조각 말고는 없다.”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의사가 환자, 보호자의 마음을 얻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난관이 생각보다 많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뭘 얻기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존경을 받으면

서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직업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항상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잘못된 점이 없는지 끊임없이 뒤돌아봐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 엄마에게 무심결에 말을 던진 전공의에게 소아외과 안정원 교수가 “의사가 환자에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 하나밖에 없어요.”라는 대사는 완벽해야 하는 의사의 직업적 윤리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치료를 한 이후 외래 진료를 하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삶에 미칠 영향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뇌수술로 의식은 돌아왔으나 실어증, 반신마비가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가 생긴 분들, 이혼을 하고, 가족 간 불화가 생겼던 사람들. 어린이날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아빠는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다른 환자를 위해 장기를 적출해야만 한다. 간 적출을 앞둔 이익준 교수는 수술실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 딱 10분만 있다가 시작해요. 아이가 매년 어린이날마다 돌아가신 아빠 때문에 울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어렵겠지만 드라마를 따라 하려는 이유이다. 🍷



##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 부르심에 대한 응답: “예”

윤인복 소화데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선포를 시작하신 후 제자들을 부르신다. 예수님은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다가 제베대오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부르신다.

예수님의 12 사도 중 야고보(Jacobus, 1세기경)는 두 명이다. 알패오의 아들인 야고보를 소(小) 야고보라고 불렀고, 제베대오의 아들이자 복음서 저자인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대(大) 야고보로 불렀다. 반면, 성 요한(John, 1세기경)은 신약성경의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서의 저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로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그들을 불러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부라는 직업을 고려한 듯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마르 4, 19)라고 약속하셨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무런 조건 없이 곧바로 “예”하고,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마르 4, 22), 예수님을 따랐다. 성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 게스라는 이름을 얻었다.(마르 3, 17)

#### 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상징물들

미술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은 다양각색으로 묘



안토니오 베네치아노, 사도 야고보, 1384년경, 베를린 국립미술관, 독일

사되었다.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개별적인 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특히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어부라는 직업을 고려하여 그림에서 호숫가나 고기 잡는 모습이 배경으로 많이 나타난다.

야고보는 순례자의 수호성인으로, 작품에서도 순례자로 묘사되곤 한다. 순례자의 지팡이와 물병으로 사용한 호리병이 그림에 등장한다. 야고보에 관한 전설에서 유래된 조개껍데기가 자주 그려진다. 그가 참수당한 후,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빈 배에 태워 바다

에 띄웠는데 이베리아 해안까지 도착하였고, 야고보의 시신은 조개껍데기들에 싸여 손상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은 어떤 말 탄 기사가 바닷물에 빠졌는데 성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다는 이야기이다. 물 위로 떠오른 기사의 몸은 조개껍데기로 싸여 있었다고 한다. 화가 안토니오 베네치아노(Antonio Veneziano, 1543-1593)의 작품에서도 야고보의 상징인 조개껍데기가 그가 쥐고 있는 지팡이에 달려있다. 긴 지팡이는 순례자의 여정을 의미하고, 야고보의 손에 든 책은 제자의 상징 중 하나이다. 책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도의 역할을 드러냄과 동시에 복음서에 기록된 주요한 사건들의 목격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요한에 관한 그림은 외경의 이야기나 『황금전설』를 통해 많은 화가의 작품 소재가 되었다. 성인과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은 뱀과 독수리이다. 뱀이 든 성작을 들고 있는 요한의 모습은 그가 독이 든 잔을 받고 축복을 하자 독이 뱀으로 변했다는 전설에 따른 것이다. 독수리는 복음사가로서 요한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조류 가운데 유일하게 독수리만이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지녔고, 요한복음서의 신학이 날카롭고 깊다는 의미에서 요한복음서는 독수리로 표상되었다. 또한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일뿐만 아니라 가장 높이 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복음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한은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볼로냐 출신의 화가인 도메니키노(Domenichino, 본명: Domenico Zampieri, 1581-1641)는 주로 장식적인 프레스코로 명성을 떨쳤다. 도메니키노는 사도 요한의 상징물들인 독수리, 독이 뱀으로 변한 잔, 그리고 복음사가로서의 책을 섬세한 빛과 채색으로 묘사하고 있다.



도메니키노, 복음사가 요한, 17세기, 밥 존스 대학교, 그린빌, 미국

### 일상에서의 부르심

한편,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 마르코 바사йти(Marco Basaiti, 1470년경-1530년)는 예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일하던 제베대오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부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 왼쪽에 푸른색 망토를 두른 예수님은 양옆에 이미 제자가 된 시몬과 안드레아와 함께, 어부인 요한과 야고보를 맞이한다. 형 야고보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장차 복음사가가 될 그의 동생 요한은 그 뒤를 잇고 있다. 당시 유대교 문화권에서 라뻬들은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였지만,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 “나를 따라오너라”(마르 4,19) 하고 당신의 제자를 부르고 계신다.

그림 배경을 살펴보면, 왼쪽 중간에 작은 언덕에 낮은 울타리 안에 양을 보호하는 목동(착한목자)이나 배를 타거나 낚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공간이 보인다. 이러한 풍경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일상의 터전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멀리 황금빛 서광은 이들 가운데 선택된 제자들이 앞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림 오른쪽 아래에 붉은색 옷을 입은 인물은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제베대오이다. 아들들과 배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제베대오는 일을 그만두고 가버린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두 아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배와 그물, 그리고 아버지마저 버린다.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무런 조건 없이 곧바로 “예”하고 순종한 시몬과 안드레아처럼 그들도 뒤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다. 그들의 동작을 살펴보면, 야고보는 예수님 앞에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정중히 무릎을 꿇고 있고, 바로 뒤의 요한도 한 손을 가슴에 올린 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화가는 이들의 동작을 통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 오른쪽 가장 아랫부분에는 이미 정박한 배 위에 버려진 그물이 보인다. 화가는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마르 4,22) 예수님을 따른 요한과 야고보의 응답을 배 위에 걸쳐진 그물로 표현하여 성경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들들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면서 배 위에 홀로 남겨진 제베대오의 모습 역시 요한과 야고보의 “그분을 따랐다”라는 행동을 강조한 표현이다. 여기서 ‘배와 그물’은 개인의 소유를 상징하고 ‘아버지’는 가정을 의미한다. 요한과 야고보가 자신들의 소유(배와 그물)와 가정(아버지)을 포



마르코 바사이티, 제베대오의 아들들의 부르심, 1510년, 아카데미아 갤러리, 베네치아

기한 것은 부르심의 응답에 대한 ‘완전한 버림’을 의미한다. “나를 따르려고 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백 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마태 19,29)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오른손을 들어 제자들의 응답을 축복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무릎을 굽히고, 가슴에 손을 얹은 행동을 보이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도 곧바로 “예, 따르겠습니다”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

### 가톨릭 직장인 후원금 안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현재까지 5개 단체, 18명의 개인 후원으로 총 3,330,000원이 모였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가톨릭직장인 월보 발행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 예비자교리 현황

2021년 직장공동체 예비자 교리를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비자교리를 하시는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교우회명	SC제일은행	강북구청	구로구청	국회	서대문구청	총 / 22명
인원	1	1	2	4	1	
교우회명	서울시청	서초구청	제주항공	한국은행	-	총 / 22명
인원	1	7	4	1	-	
구 분	내 용					
교리기간	6월 7일-12월 10일, 총 27주					
교리방법	EDWITH를 이용한 비대면 교리					
참고피징	12월 12일(주일) 09시 30분~16시, 영성센터 B201					
세례성사	12월 19일(주일) 13시 30분, 명동대성당					
문의전화	02-727-2078, 2080 / 010-4799-2078					

### 직장공동체 송년감사 미사

한해를 마감하면서 직장교우회원들과 함께 송년미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금년엔 비록 많은 교우회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참석 못 하시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 분	내 용
일시	12. 9(목), 19:30
장소	명동대성당 패밀리아채플
주례	노우식 스테파노 신부 외 직장사목팀 사제단



# 명동밥집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인 것입니다.”  
(고린 10장 17절)



나는 나눔입니다.

슬퍼하는 친구를 위해 눈물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기쁜 소식을,  
이웃을 위해 시간을,

그리고 배고픈 아들과  
따스한 한 끼를 나눔니다.

나누는 마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따스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 함께해주세요.

#### 명동밥집 후원하기

■ 신청방법 : 홈페이지 [mdbj.or.kr](http://mdbj.or.kr) 전화 02-774-3488

#### 후원계좌

■ 무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자활사업 후원 : 우리은행 1005-304-138483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밥집 봉사자 신청 : 명동밥집 홈페이지 참조(mdbj.or.kr)



**Pray** [prey] : to offer devout petition, praise, thanks, etc., to (God or an object of worship).

**Origin of Pray**

1250~1300; Middle English preien<Old French preier < Latin precārī to beg, pray, derivative of prex (stem prec-) prayer; akin to Old English fricgan,Dutch vragen,German fragen,Gothic fraihnan to ask



[www.catholicworkers.or.kr](http://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mailto:gikjang@catholic.or.kr)